

학교 등에 관한 4월 17일 이후의 대응

2020년 4월 16일

오이타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본현에서는 4월 14일자 「4월 15일 이후의 당면 대응」을 토대로 감염 확대 방지에 힘쓰고 있지만 어제 현내에서 새롭게 5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어 현시점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학교 및 현립 사회교육시설 등에 관해 4월 17일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의 대응에 대해서

- (1) 현립 고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4월 17일(금)부터 2주 후인 5월 1일(금)까지 휴교하고, 휴일·주휴일을 포함해 5월 6일(수)까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학식·입학식을 마치고 신학기 수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휴교 중에도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자택에서 학습을 지원한다.
- (2) 현립 특별지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휴교하지만 학생 상황에 따라서는 거처 확보를 위해, 만전의 감염 방지 조치를 취한 후에, 학생을 받는다.
- (3) 시정촌립의 초중학교·의무교육학교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상기 대응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청한다.

2 현립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 (1) 현립 도서관 등의 사회교육시설이나 현립 미술관, 현립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기 1의 대응 등에 따라 이른바 3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쳐져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4월 17일(금)부터 5월 6일(수)까지 휴관한다.
- (2) 현립 사회교육시설 등은 불특정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대관행사에 대해 4월 17일(금)부터 5월 6일(수) 사이 주최자에게 자숙을 요청한다.